



농협 남원시지부, 수출전략품목 현장 컨설팅

농협은행 남원시지부는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 남원시지부(지부장 권오정), 지리산농협(조합장 정대환), 남원원예농협(조합장 김용현),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백남정), 지역농협네트워크(협) 전북지사 등의 주관으로 남원의 수출전략품목인 시안미스켓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재배농기를 찾아 현장밀착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수출현장컨설팅은 시안미스켓 수출관련, 고품질 농산물 재배기술, 병해충 관리기술, 수출클레이밍 해소방법, 수확 후 관리, 저장방법 등 수출농가에서 꼭 필요로 하는 교육을 과정 현장에서 직접 피드백 하며 문제해결식으로 진행되었다.

남원 춘향이인 농특산물은 우수한 품질로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일본, 베트남, 홍콩 등 세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특히 시안미스켓 포도가 전북 최초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정하는 수출감역단지로 지정되어 올해부터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권오정 남원시지부장은 “이번 중국수출감역단지 지정을 계기로 남원 춘향이인 시안미스켓의 우수성을 알리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재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비전대 지적토목학과 남원시 방문견학

남원시 민원과는 전주비전대학교 지적토목학과 담당 교수·학생 150여명이 전공체험 활동과 진로탐색을 위해 5월 30일부터 5월 31일 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남원시는 학생들의 진로 및 장래 취업설계를 위한 현장실무 견학과 지적·토목 전공정보 공유를 비롯한 지적 측량 체험을 제공해 재학생들의 학업 및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현장학습에 지원하였다.

한 학생은 남원시청,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원지사 견학을 통해 견문과 사고의 폭을 넓히고 향후 취업 대안 마련감과 학과 전공에 대하여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흡족해 했다.

권혜정 남원시 민원과장은 “전라북도 주관 2021년 지적·토지정보 업무 최우수기관인 남원시의 행정 능력과 지적·토지 전문 기술·정보를 도내 유일한 지적토목학과 학생과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제공하여 지역인재 관심도 제고를 통한 지역 일자리 및 향후 진로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경찰, 제1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개최

임실경찰서(서장 김효진)는 지난달 30일 경찰서 소통방에서 임실군청, 교통전문가, 지역주민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1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제한속도 하향·가변형 속도제한표시, 획단보도 설치 등 임실군민 민원 11건을 접수 및 심의 의결하여 가결 10건, 부결 1건으로 처리했다.

임실경찰서는 정기적으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사고예방을 위한 도로 개선·시설의 신설·보완이 요구되는 시안에 대해 임실군청, 교통전문가, 지역주민 등 각계 각종 의견과 민원을 수렴하여 심의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군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효진 임실경찰서장은 “인구의 37%가 초고령층인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차지경찰사무인 교통안전시설을 더욱 강화·보완하고 지속적으로 군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행복한 추억 담긴 가족사진’

전북은행, ‘찾아가는 이동스튜디오’ 장애인 100가정 선물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지난달 30일 전북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병설 사무처장, 두드림사회적협동조합 최성원 대표, 오준규 국장 전북은행 방극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2022 행복한 추억 가족사진 전달식을 실시했다.

전북은행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울감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족사진 촬영의 기회를 제공해 행복감을 증진하고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은행은 지난 한 달 동안 ‘찾아가는 이동스튜디오’를 운영해 도내 지역별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가족사진 촬영을 진행했으며, 가족사진 액자를 제작해 도내 장애인 총 100가정에 전달했다.



방극봉 부행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도내 장애인 가정에 행복한 추억이 담긴 가족사진을 선물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소외받는 이웃들이 없도록 지역사회에 구준한 나눔을 실천해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기자



임실군, 인하마을 ‘고향사랑캠프’ 성황리 마쳐

임실군 지사면 인하마을이 지난달 28일과 29일 안하마을 체험휴양마을을 일대에서 도농교류 산촌미팅캠프를 진행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산촌미팅캠프는 전라북도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공동시설을 활용한 캠프와 다양한 농촌체험활동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농촌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여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인하마을에서는 이번 캠프를 통해 출향민을 대상으로 다시 농촌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코로나9로 힘든 시기를 같이 극복하고, 고향의 넋нец한 인심을 다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코로나9 극복 캠프’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인하마을은 미을환경정비는 물론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농촌음식으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며, 오랫동안 마을을 떠나 있었던 출향민들이 도착했을 때 마을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이하는 등 마을주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행사를 더욱더 빛냈다.

또한 참여자들은 산양암 삼기, 흥미누 만들기 체험 등에 참여했으며, 어렸을 때 먹었던 먹거리들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인하마을은 미을환경정비는 물론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농촌음식으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며, 오랫동안 마을을 떠나 있었던 출향민들이 도착했을 때 마을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이하는 등 마을주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행사를 더욱더 빛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농협, 초등학생들과 모내기·채소 수확체험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지난달 31일 전주덕진초등학교(교장 박영희) 스쿨팜 체험장에서 100여 명의 학생들과 모내기 및 채소 수확체험을 실시했다.

전북농협은 도내 40개 초등학교(전주 20개교, 익산 12개교, 군산 8개교) 농업 체험장 조성을 마무리하고, 어린이들과 함께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통방식으로 손 모내기 체험을 진행 중이다. 이날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논을 대신한 고무상자지를 활용해 양쪽 끝에서 뜯 줄을 잡고 모를 직접 심어보고, 체험장에서 직접 기른 상추, 고추 등의 채소를 수확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정재호 본부장은 “모내기를 통해 심는 즐거움을 느낀 학생들이 벼를 기르고 수확하며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몸子里 느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쿨팜은 전북농협이 전북도정과 전북도교육청, 전주·익산·군산시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40



개 초등학교 유부부지에 농업 체험장을 조성하여 모듬채소, 김장채소 등을 모종 식재부터 재배, 관리, 수확, 음식 조리까지 일련의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김윤상기자

예수병원 의료진, 세계최초 경구내시경 근절개술 유용성 규명

예수병원(원장 김철승)은 소화기 내과 조진웅 부원장팀(조진웅, 이원동, 양민아)이 세계최초로 위에 개방형 경구내시경 근절개술의 유용성을 SCIE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경구내시경근절개술은 식도와 위에서 수술을 대신해서 식도이완불능증, 위마비환자를 치료하는 최신 내시경 수술 방법으로, 고도의 시술 경험이 필요해서 국내 소수의 병원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병변의 점막이 노출된 채로 시행하는 개방형 내시경근절개술은 전공의 위험이 있어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조진웅 부원장

조진웅 부원장은 “거대한 위종양을 제거한 후에 혈착이 생길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개방형 경구내시경근절개술을 천공없이 완전하게 시행했으며, 기존의 치료법보다 높은 혈착 예방효과를 증명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Journal of Digestive Disease’에 발표되었으며, 2020년 impact factor가 2.325인 SCIE 논문이다.

한편, 조 부원장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Clinical Endoscopy’ 발행 기념행사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으며,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발행된 교과서인 ‘소화기내시경복강경 치료의 길잡이’의 저술에도 참여해 세계최초로 정파하 공간을 이용한 다양한 내시경적 시술을 여러 차례 성공하는 등 내시경적 절제술의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

/김윤상기자



진안군, 지역 내 아동 찾아가는 인형극 공연

진안군은 지난달 31일 문화의집 공연장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 190명을 대상으로 인형극 ‘돼지밀이 들려주는 의 좋은 형제’ 찾아가는 생일파티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어린이정책체험관 특별공연으로 펼쳐진 이번 공연은 따뜻한 형제애와 나눔의 가치, 사랑하는 마을을 일깨워 주는 교육을 담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재미있는 이야기로 공연이 기획됐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과 미술소도 함께 진행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관람 후에는 인형극 출연진들과 같이 기념촬영을 하는 등 아이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행사들로 구성됐다.

이어순 여성가족과장은 “코로나9로 인해 문화 행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관내 이동들에게 다양한 체험 교육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임실경찰, 제1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개최

임실경찰서(서장 김효진)는 지난달 30일 경찰서 소통방에서 임실군청, 교통전문가, 지역주민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1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제한속도 하향·가변형 속도제한표시, 획단보도 설치 등 임실군민 민원 11건을 접수 및 심의 의결하여 가결 10건, 부결 1건으로 처리했다.

임실경찰서는 정기적으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사고예방을 위한 도로 개선·시설의 신설·보완이 요구되는 시안에 대해 임실군청, 교통전문가, 지역주민 등 각계 각종 의견과 민원을 수렴하여 심의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군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효진 임실경찰서장은 “인구의 37%가 초고령층인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차지경찰사무인 교통안전시설을 더욱 강화·보완하고 지속적으로 군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진안소방서, 119시민구조대 자원봉사자 모집

진안소방서(서장 오정철)는 지난달 31일 여름철 물놀이 장소 안전과 수난사고 인명피해 경감을 위한 2022년 119시민구조대원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6월 18일까지이며 의용소방대원, 대학생, 수난구조관련 자격소지자,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119시민구조대원으로 선발된 자원봉사자는 6월 24일부터 8월 15일까지 약 2개월간 관내 주요 물놀이 지역 수변 순찰 및 물놀이객 등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문화 홍보, 안전계도, 기초 응급처치 등의 봉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진안=우태민 기자

인사

농촌진흥청

◇과장급 승진 ▲손재용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수획후관리 공학과장 ▲심강보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재배환경과장
◇과장급 전보 ▲신재훈 청정비서관 ▲김희용 기술협력국 국제기술협력과장